

확 달라진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5경기 무패'

대구와 29-29 아쉬운 무승부 뒷심 부족으로 막판 동점 허용 14득점 강경민 MVP 선정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선수들이 지난 26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구전에서 골을 넣은 뒤 수비로 전 환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 나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켈러플 대구를 상대로 29-29,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다. 강경민은 이날 14득점을 올리면서 대회 MVP에 뽑혔다. 광주도시공사가 전력상 다소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던 팀과 경기였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광주도시공사는 불과 일주일전 대구를 32-28로 꺾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전반전을 17-13, 4점차로 리드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후반 종료 5분 여를 앞두고 28-24로 4점차 리드하던 광주도시공사는 추격을 허용했다. 김지현, 원선필이 잇달 반칙으로 2분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 종료 1분전 28-28, 동점 상황을 초래했다. 후반 20초를 남겨두고 강경민이 골을 넣으면서

29-28로 다시 리드를 잡았으나, 종료 직전 대구 김아영에게 동점골을 허용, 승부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무승부 경기에서 뒷심부족을 드러냈다. 후반전에서 전력이 흐트러지면서

번번이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후반전에서도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전반전과 같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해 남은 경

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부산시체육회와 2라운드 2번째 경기를 갖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포브스 선정 올해의 스포츠 선수 '테니스 여제' 오사카 나옴이

올해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인 오사카 나옴이(일본·사진)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2020년 올해의 스포츠 인물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사카는 올해 한때 세계 랭킹이 10위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여자 선수 가운데 최고 수입을 기록하는 등 코트 안팎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US오픈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던 오사카는 이후 2019년 호주오픈과 올해 US오픈 등 최근 3년 연속 메이저 왕좌를 놓치지 않았다. 아시아 국제 선수로는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오사카는 올해 5월 포브스가 발표한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서 최근 1년간 3740만달러(약 412억7000만원)를 번 것으로 집계돼 여자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또 오사카의 코트 밖 영향력에도 주목했다. 포브스는 "오사카는 자신의 영향력을 인종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활용했다"며 올해 US오픈에서 7경기를 치르는 동안 인종 차별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기 위한 대회 기권 의사 표명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다니엘 멩덴 영입 KIA, 2021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

브룩스와 오클랜드서 함께 뛰어



14패 1세이브의 성적을 냈다. 와일드한 투구 폼을 가진 멩덴은 140km 중후반대의 패스트볼의 구위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한 안정적인 제구와 함께 커터,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해 타임을 뺏는다.

KIA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다니엘 멩덴(Daniel Joseph Mengden·27·사진)을 영입하면서 2021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KIA는 지난 25일 멩덴과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42만5000달러, 옵션 27만5000달러 등 총액 100만달러에 계약을 끝냈다. 드류 가논을 대신해 멩덴을 영입하면서 KIA는 기존 멤버인 애런 브룩스·프랜시스 터커와 함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조합을 구성했다. 멩덴은 브룩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한 술밥을 먹은 '옛 동료'다. 윌리엄스 감독과도 오클랜드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만큼 KBO리그 적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인 멩덴은 우완 오버핸드 투수로 신장 185cm·체중 102kg의 체격을 지니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보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6시즌 동안 뛰었다. 2016년부터 올 시즌까지 오클랜드에서 활약한 멩덴은 메이저리그 통산 60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4.64로 17승 20패 1세이브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 뛴 6시즌에는 평균자책점 3.14와 30승

관건은 구속회복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팔꿈치 뿔조각 제거술을 받은 멩덴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4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치며 평균자책점 3.65로 1패만 기록했다. KIA는 "멩덴은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선발 투수로, 젊은 나이에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다"며 "올 시즌을 앞두고 팔꿈치 뿔조각 제거술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구속을 회복하며 제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혼신의 연기 26일 러시아 헬렌빈스크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카밀라 발리레비치가 매혹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P통신 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 '농구 황제' 르브론 제임스

미국 프로 농구(NBA) LA 레이커스의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사진)가 AP통신이 선정하는 올해의 남자 스포츠 선수 영예를 안았다.



AP통신은 27일 "올해의 남자 선수로 제임스를 선정했다"며 "제임스는 올해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세상에 알렸고, 리그에서도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발표했다. 제임스는 AP통신 35명의 패널로 구성된 투표 결과 78점을 획득, 71점을 받은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시티의 쿼터백 패트릭 머휴스(미국)를 근소하게 따돌렸다. 이로써 제임스는 2013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이상을 받게 됐다. 1931년 창설된 AP통신 올해의 선수에서 남자 선수 부문은 제임스 외에 타이거 우즈(골프), 랜스 암스트롱(사이클·이상 미국)의 4회 수상이 최다 기록이다. 제임스는 올해 10월 끝난 NBA 챔피언결정전에서 LA 레이커스를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며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또 올해 여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인권 운동에도 목소리를 내며 코트 안팎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제임스는 "경기에서는 항상 내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코트 밖에서도 사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AP통신 올해의 선수는 최근 8년 사이에 6차례나 NBA 선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광주FC 창단 10주년 추억 공유 이벤트

50명 선정 다양한 상품 선물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과 지난 10년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번 이벤트는 팀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지난 10년간의 추억 중 가장 가치 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 영상, 이미지 등을 오는 30일 오후 12시까지 '카카오톡 광주FC'로 전송하면 된다.

광주는 50명을 선정해 10주년 특집 만화책 '우리는 광주FC'와 옥스퍼드 북클, 2020 사인볼 등의 MD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팀 창단부터 두 번의 강등과 승격, K리그 우승, 파이널A 진출까지의 10년의 추억을 회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원더우먼 1984
2관	원더우먼 1984, 도굴
3관	이웃사촌, 러브 액츄얼리
4관	원더우먼 1984, 100%올프-푸들이 될 순 없어
5관	원더우먼 1984, 런
6관	원더우먼 1984
9관	조제
7관 씨네카를	조제, 러브레터
8관 씨네카를	도굴, 런, 러브 액츄얼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시즌
리처드 용재오닐 '선물'
2020. 12. 2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